

진도 농산물가공센터 ‘창업 요람’

구기자 등 48개 제품 생산·연 매출 20여억원
10억 투자 가공포장시설 설치 해협 인증 추진

진도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가공·판매하는 진도군 농산물가공지원센터가 농업인 가공 창업의 전진기지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농업인들은 제조·가공을 위한 포장·부자재 등의 비용만 부담하면 센터를 이용할 수 있다. 진도올금과 구기자, 대파 등을 활용한 티백차, 추출액, 음료 등 총 48개 제품을 생산, 1년 매출액 20여억원을 올리고 있다.

생산된 가공 제품은 농협 로컬푸드매장과 진도명품관 특산물 판매장 등에서 판매되고 있다. 군은 소규모 가공 창업을 희망하는 농가들이 증가함에 따라 2017년 9월 진도농산물가공지원센터 개소를 통해 농가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가공해 상품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진도를 포산리에 있는 센터는 시설과 기술 부족으로 가공 분야에 도전하지 못했던 소규모 농가들

에 기술지원을 통해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다양한 가공식품으로 개발해 왔다. 9월 현재 건조·분말 제품으로 생산할 수 있는 40여종의 장비가 설치돼 있다. 올해 10억원을 투자해 가공포장시설 설치와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인증 추진 등을 통해 고품질의 농산물 가공품을 생산, 농가의 새로운 소득원을 창출해 나갈 계획이다. 진도군 관계자는 “지역의 우수한 농산물을 활용한 연구·개발로 고품질의 농산물 가공품을 생산하고 다양한 판매처를 확보해 농가 소득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고 말했다. /진도=박현영 기자 hypark@

무안군 “건강 버스 마을로 찾아갑니다”

11월까지 혈압 검사·치과 진료 등

무안군이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군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11월까지 마을로 직접 찾아가는 건강 버스를 운영한다. 찾아가는 건강 버스는 공중보건의사와 간호사, 운동지도사 등으로 구성된 전문인력들이 11개 보건진료소 마을을 방문해 진료를 하고 혈압·혈당·체지방 등을 검사해 개인에게 맞는 일대일 맞춤형 건강상담을 진행하는 서비스이다. 또 치과 진료도 가능한 이동 버스에서 구강검진, 불소도포, 스케일링을 하고 가정에서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간단한 건강 체조(사진)와 스트레칭을 교육해 어르신들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통합적 건강서비스를 제공한다. 올해는 지난 14일 성내보건진료소에서 첫 운영을 시작했으며, 11월까지 총 11개 보건진료소에



서 주민 190명을 대상으로 일정에 따라 운영될 예정이다. 김산 무안군수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건강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과 취약계층

의 건강을 보살피기 위해 찾아가는 건강 버스를 운영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군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무안=임동현 기자 idh@

목포 소재 신안교육청, 신안 이전 탄력…2024년 완공

청사 이전 협약…126억 투입

전남도교육청과 신안군이 신안교육지원청 청사 이설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전남도교육청과 신안군은 장석웅 전남도교육감과 박우량 신안군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약식을 갖고 부지 맞교환과 이전 관련 인허가 및 민원처리, 비용 부담 등 행·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합의했다. 이로써 신안군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던 신안교육지원청 이설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게 됐다. 이번 협약을 통해 신안군은 신안교육지원청 부속 창의융합교육센터 기자재 및 프로그램 구축비 10억원과 함께 진출입로 개설 등 기반시설 조성을 지원하기로 했다. 현재 목포에 자리하고 있는 신안교육지원청은 사업비 126억원을 들여 신안군 압해읍 동서리 1만 2683㎡ 부지에 2동 규모(지상 3층, 지하1층)로 신



지난 29일 장석웅 전남도교육감과 박우량 신안군수 등이 신안교육지원청 청사 이설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전남도교육청 제공> 축된다. 지난 8월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해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었으며 2024년 7월 완공예정이다. 장석웅 전남도교육감은 “이번 신안교육지원청 청사 이설로 지역 학교에 대한 지리적 접근성이 향

상돼 교육가족에게 보다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신안군청과 긴밀하게 행·재정적 협력 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kwangju.co.kr

해남군, 셋째 자녀 대학교 학비 신청 접수

8일까지…학기당 최대 150만원

해남군이 다자녀 가정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다자녀 가정 대학교 학자금’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부모 중 한명이라도 해남군에 3년 이상 계속해 거주하는 다자녀 가정의 셋째 이상, 만 39세 미만의 자녀이다. 원격 대학을 제외한 교육부 장관이 인가한 국내 대학 재학생에게 학기당 최대 150만원씩 최대 8학기까지 지원 가능하다. 올해 2학기 학자금 지원 신청서는 오는 8일까지 접수한다. 또 대상 학생이 다른 장학금을 지원받는 경우에는 타 장학금을 포함한 금액이 등록금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차액을 지원할 수 있다.

신청결과를 바탕으로 한국장학재단과 해당 대학교에 학자금 중복지원방지 여부를 최종 확인해 대학교에 선 지급하게 되며, 기 납부한 학자금을 각 대학교에서 다자녀 가정에 반환하게 된다. 재학중면서, 신청자의 신분증, 학자금 납입증명서 등 서류를 구비해 읍면사무소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해남군은 지난해 8월 해남군 다자녀 가정 지원 조례를 개정해 통해 대학교 학자금 지원대상을 다자녀 가정 넷째 이상 자녀에서 셋째 이상 자녀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올해 1학기에는 97명에게 1억2378만7000원을 지원, 전년도 1학기 대비 84명, 1억1068만8000원을 추가로 지원했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

‘2022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 결국 취소

지난해 코로나로 한차례 연기

‘2022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취소됐다. 완도군에 따르면 (재)완도해조류박람회 조직위원회는 최근 제8차 이사회를 열고 국민 안전과 지역사회 안정을 위해 2022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를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조직위는 박람회 개최 여부에 대해 감염병, 방역 등 전문가 조언과 군민, 항우 등 폭넓은 의견을 수렴했으나 세계적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찾아들지 않고, 국내외 행사들이 줄줄이 취소되는 등 박람회 개최에 따른 우려를 감안했다. 2014년, 2017년에 이어 3회 연속 국제 행사 성

인을 받은 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는 ‘치유의 바다, 바닷말이여는 희망의 미래’라는 주제로 2021년 4월 개최하려 했으나 코로나19 사태로 1년 연기돼 2022년 4월15일부터 5월8일까지 열릴 예정이었다. 완도해조류박람회 조직위원장인 신우철 완도군수는 “그동안 준비해 온 박람회를 취소하게 돼 아쉬움이 크지만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건 국민의 안전이기에 심사숙고해 결정했다”면서 “박람회는 취소하나 해조류 산업 발전과 소비 촉진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온·오프하 이브리드 수출상담회, 라이브 커머스 등의 대체 행사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완도=정은조 기자-전남총괄취재본부장 ejhung@

목포시, 국가안전대진단 기간 안전 점검

목포시가 국가안전대진단 기간을 맞아 안전점검을 중점 추진한다. 국가안전대진단은 대형안전사고의 빈번한 발생으로 안전사회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증대됨에 따라 각종 시설물의 대대적인 점검을 통해 안전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기 위해 실시된다. 올해 국가안전대진단은 오는 4일부터 31일까지 28일간 7개 분야 51개 시설에 대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지침을

엄중히 준수한 가운데 실시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대진단 점검시설대상지 중 육안 점검이 어려운 대규모 시설은 점진장비인 드론을 활용해 점검할 계획이다. 시는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 조치하고, 보수·보강 또는 정밀안전진단 등 시간과 예산이 수반되는 시설물은 지속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목포=박영길 기자 kyl@kwangju.co.kr

영암, 주택용 소방시설 무상보급

영암군이 화재로부터 군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영암군은 오는 12월 21일까지 3개월간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사업은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 방지를 위해 화재 취약지역에

소화기와 화재 감지기를 무상으로 보급한다. 영암군은 소방서 및 마을이장들과 함께 실거주 등을 면밀하게 조사해 확정된 8493세대를 대상으로 군비 2억 2000여만원을 투입해 소방시설을 무상으로 보급할 계획이다. 한편 영암군은 지난 2017년과 2018년 재난취약세대(7초생활수급자 노인 등)와 장애인 거주 가정 8454세대에 주택용 소방시설을 지원했다. /영암=전봉헌 기자 jbh@kwangju.co.kr

ESS시공전문기업

태양광발전소 부지·시설 고가매입

당사 및 당사관련사업소에서는
소형(100kW~1,000kW) 중형(1,000kW~3,000kW) 대형(3,000kW이상)의
태양광발전시설을 대량 매입중입니다

- 매매대상 ●
- 개발행위 허가전 발전소
- 개발행위 허가중 발전소
- 현재 공사중인 발전소
- 현재 운영중인 발전소
- 1차 FIT 종료중 발전소
- 곤충사육장 + 태양광
- 버섯재배사 + 태양광

선로 걱정 하시고 전화주세요!

당사에서는 **개발행위**(건축물 위 공작물 축조신고)를 **무료**로 해드립니다.(*건축물 구조진단 비용은 유료)

NB 환경과에너지종합기술단(주)

상
담
전
화

전국대표 1544-1926
010-7614-1055
010-2845-4754